

“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

■ 이종윤 원로목사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는 ‘道德的 인간과 非道德的 사회’ 라는 책(1932)을 출판하여 많은 독자들에게 영향을 끼치었다. 그가 13년간 목회하던 미국의 디트로이트시는 포드 자동차 공장의 팡창으로 노동자들의 생활문제·노사관계와 같은 사회윤리문제가 급증하고 있었다. 그는 이 책에서 단체 간의 관계에서 윤리가 없고 투쟁과 타협의 정치만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의 도덕적·사회적 행동과 사회단체의 도덕 및 사회 행동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본다. 사회단체란 국가, 민족 그리고 경제단체들을 뜻한다. 사회집단이 개인보다 더 비도덕적이 되는 것은 개인들이 합침으로 새로운 악이 가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개인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악과 무능이 구체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인간의 이기욕과 타인의 이익을 자기의 이익처럼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의 부족으로 인간사회의 단결이란 언제나 어느 정도의 강압적 요소가 있게 마련이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등에 입각한 조화보다는 부정의를 동반하는 압력이 필요한 것이다. 신학자 폴 틸리히(Paul Tillich)는 ‘사랑·힘정의’ 라는 저서(1953)에서 궁극적으로 살아있는 神에 대한 해석을 통해 존재론적 이해를 촉구한다.

그러나 니버는 개인이나 사회집단의 불의를, 종교에서는 이기욕 때문이라 보고 합리주의자들은 무식의 소치로 보고 모든 불의는 극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니버는 아무리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나라도 타국과의 관계에서 이타적인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정의 구현을 위해서 종교는 중요하지만, 너무 무력하다고 니버는 보았다. 사회집단 가운데 단결력이 가장 강한 것이 국가란 것이다. 자국의 이익이란 이유 이외에 다른 이유로 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존재해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국가란 가장 위선적이며 부정직한 단체라고 보았다. 국가보다 그 구성원들의 이기욕이 더 강하게, 더 적나라하게, 더 위선적으로 대변되는 것이 특권 계급이다. 종교적·철학적 신념보다는 특권 특히 경제적 이익 때문에 형성되는 것으로, 그들이 흔히 주장하는 정당화란 그들의 특권이 사회 전체에 대한 그들의 봉사에 대한 정당한 보응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비특권 계층에 전혀 기회를 허용치 않으면서 그들의 무능을 비판하고 그들을 불법자들로 몰아세움으로써 스스로를 법과 질서의 기수로 자처하며 도덕적으로 자기들의 정당화를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들 특권층에 비하여 노동계층의 도덕에 대한 태도는 매우 냉소적이라고 니버는 분석한다. 그는 칼 막스의 생각이 이 계층을 잘 나타낸다고 믿고 있다. 무산계급은 인간의 도덕적 능력을 불신하고, 도덕적 가치도 경제적 하부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데올로기의 일부라고 본다. 그들은 민주주의, 민족주의, 애국정신 등에 대해 매우 냉소적이다. 새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아무도 독점과 그 악용을 시도하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 가능성은 낭만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늘날같이 대형화, 유기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개인의 책임의식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 개인 대 개인 간의 책임의식을 가지고는 오늘의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한 개인의 결정이 한 사회에 미치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지를 눈앞에 그려볼 수 있는 지적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사회의 잘못이 개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추적할 수가 있어야 한다. 집단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무책임이 용서를 받아서는 안된다. 그렇게 될 때 세속도성은 쉽게 무너질 수가 있다. 정의라는 가치를 평화나 자유보다 우위에 두는 것도 그의 독단이다. 평화란 명목하에 온갖 부정의가 자행될 수 없듯이, 정의와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살생과 폭력이 자행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것들이다. 평등·평화·자유 등은 인간의 기본가치로서, 그 사이에 어떤 가치의 계급을 인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매우 현실적이고 비독단적인 니버가 이 문제에서 좀 더 본질적이면서 실질적이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한국장로신문 [제 1622호] 2018년 12월 15일 발췌-

| | |
|---------------------------------------|--|
| <h3>English Worship Service</h3> | |
| [Room 802, 11:20 am] | [Presider : Deacon Kichan Yoo] [Preacher : Pastor Euichang Kim] |
| * Call to Worship | John 4:24 Presider |
| * The Apostles' Creed | Congregation |
| * Doxology | 1 Congregation |
| Congregational Prayer | Deacon Dong Woo Park |
| Hymn | 2 Congregation |
| Scripture Reading | Psalms 130:1-8 Presider |
| Welcome/Fellowship | Congregation |
| Offering | Congregation |
| * Offering Hymn | 50 Congregation |
| * Offering Prayer | Presider |
| Anthem | Congregation |
| Sermon | "I Wait for the Lord" Pastor |
| * Hymn | 263 (I hear the Savior Say) Congregation |
| * Benediction | Pastor |
| * Lord's Prayer Song | 635 Congregation |
|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 |

| | | |
|--------------------------|---|--|
| <h3>우리의 비전 (vision)</h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교회 QR코드</p> |
|--------------------------|---|--|

| |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 |
|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
| <p>선 교 사 강아급주하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경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정상찬홍성임(필리핀),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중일백순미(타기노동자), 필리핀, 프로산토, 수레시, 수바식, 이경엽, 알로를, 비사누보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박명성,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영민(군선교)</p> | |

| | |
|--|--|
| | <p>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p> <p>대한예수교 장로회</p> <p>서울교회</p> <p>SEOUL PRESBYTERIAN CHURCH</p> <p>원로목사 이 종 윤</p> <p>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p> |
| | <p>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p> <p>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www.iseoulchurch.or.kr/</p> |

“ 새롭게 하시는 주의 능력 안에서 ”

■ 고후 5:14-17
본문은 성도가 시온성을 향하여 순례 여정을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우리 서울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함으로 올 한해에도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류의 조상이며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므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며 죄와 구원과 믿음을 강조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그 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위대한 예수그리스도 대속의 사랑은 오직 연합의 원리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에 오직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예수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에 참여함으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칼빈주의 신학자인 Charles Hodge 목사는 “예수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예수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헌신의 삶을 살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예수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만이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을 이루게 되고, 이렇게 화목을 이루는 자의 삶은 예수그리스도를 섬기는 참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본문 17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는 14절~16절까지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셨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 비결은 ‘예수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이며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가장 많이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며 성도의 칭의이고, 성화와 영화의 근거, 즉 구원의 원동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썩어 없어질 세상의 풍습, 지혜를 기준으로 살아왔으나, 이제는 오직 예수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세계에서 복음의 능력과 가치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3.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능력 안에서 걸어갈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시 37:4-6)라고 찬양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생의 길을 걷는 자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진정 여호와를 기뻐하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새 피조물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주저앉고, 돌아 설 수밖에 없지만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기쁨으로 힘차게 눈물의 골짜기를 뛰어 넘어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맺는 말
우리는 구원을 받아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천국이 완성된 곳이 아니기에 아무리 성결하며 성령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 노력을 한다 해도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낙낙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험난해도, 악한 세력이 온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다 해도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있는 한, 결코 교회와 성도들을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돌아보며 우리들이 가야할 길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장석남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 Sunday Worship Service | | | 오후 5시 · 인도: 서명철 목사, 설교: 김용진 선교사 | |
|---|---------|-----------------------------|---------------------------------|-------|
| 시 간 | 인 도 | 기 도 | | |
| Time | Prsider | Prayer | | |
| I 오전 9시 | 서명철 목사 | 최형열 장로 | 목 도 | 다 합 계 |
| II 오전 11시 20분 | 장석남 목사 | 차도훈 장로 | 성 시 시 67:1-2 | 인 도 자 |
| III 오후 2시 | 조원영 목사 | 인 도 자 | 찬 송 304(404) | 다 합 계 |
|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 기 도 | 정인주 집사 | |
|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5:4-7... | 인 도 자 | 성 경 은 4:1-11 | 인 도 자 | |
|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양 | 찬 양 대 | |
| * 찬 송 Hymn3(2)..... | 다 합 계 | 설 교 ... "내가 아끼는 것이 | 설 교 자 | |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합 계 | 어찌 함당하지 아니하나?" ... | | |
|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6(시 10)... | 다 합 계 | * 찬 송 314(511) | 다 합 계 | |
| * 송 영 Doxology | 다 합 계 | * 축 도 | 설 교 자 | |
| 기 도 Prayer | 말 은 이 | * 주기도송 | 다 합 계 | |
| 찬 송 Hymn21(21)... | 다 합 계 | | | |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합 2:4, | 인 도 자 | | | |
| 마 3:14-15, 롬 1:16-17... | | | | |
|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합 계 | | | |
| 봉헌 Offering | 다 합 계 | 오후 7시 ·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 | |
|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 | 다 합 계 | 기 도 | 이선화 집사 | |
|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 성 경 삼상 29:1-11 | 인 도 자 | |
| 찬 양 Anthem | 찬 양 대 | 찬 양 | 찬 양 대 | |
|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합 계 | 설 교 ...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 | 설 교 자 | |
| 설 교 Sermon ...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 이종윤 목사 | | | |
| (The Power of God unto Salvation) | | | | |
| * 찬 송 Hymn543(342)... | 다 합 계 | | | |
|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 | |
|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합 계 | | | |

수 요 예 배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홍혜란 김양안 박수강 김복희
 설 교 서명철 목사

|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 | | | | | | | |
|--|------|-----|--------|-------|--------|---|-----|-------|
| 찬 양 대 | | | | | 헌 금 송 | | | |
| 예 배 | 찬양대 | 지휘자 | 오르가니스트 | 피아니스트 | 팀파니스트 | 찬양대 | 지휘자 | 피아니스트 |
| I 부 | 가브리엘 | 백경화 | 박준호 | 박승기 | 윤주일 | 가브리엘 | | |
| II 부 | 할렐루야 | 류충기 | 차주연 | 김양언 | 윤주일 | 그레이스핸드벨 | 송재월 | |
| III 부 | 임마누엘 | 유태왕 | 김윤지 | 이주희 | 윤주일 | 아멘관현악단 | 임범창 | |
| 찬양예배 | 베들레헴 | 임범창 | 안효주 | 박수강 | 윤주일 |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 | |
| 영어예배 | 예루살렘 | | | | 지난주 성구 | | | |
| 수요 I 부 | | | | | | | | |
| 수요 II 부 | 은 빛 | 박래경 | 김윤지 | 홍혜란 | | | |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 구 분 | 시 간 | 장 소 | |
|-----------|-----------------|------------------|----------|
| 주 일 예 배 | I 부 예 배 | 오전 9시 | 본당 |
| | II 부 예 배 | 오전 11시 20분 | |
| | III 부 예 배 | 오후 2시 | |
| | 찬 양 예 배 | 오후 5시 | |
| | English Worship | 오전11시20분 | |
| 수 요 예 배 | II 부 예 배 | 오후 7시 | 웨스트민스터 홀 |
| 새 벽 기 도 회 | | 오전 5시 30분(월 - 토) | 본당 |

교 회 소 식

◆ 알 림

-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주일 오후 12시40분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주일 오전 10시2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
- 금주 수요일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노선균(흉부외과), 경현구(치과)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공민호(신경외과), 김봉배(통증의학)입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728-5939
-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 세례식 신청 / 금년도 첫번째 2월 세례식이 2월17일(주) 저녁찬양 예배 시 있습니다.
세례/입교/개종/유아세례/대상자 문답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사무국): 2월 3일(주)
문답총정리는 2월 10일(주) 1시에 105호에서 있으니 대상자는 필히 참석 바랍니다.
문답은 2월 10일(주) 오후 2시에 105호에서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람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지난주 출석현황 | | | | |
|----------|------|------|---------|-------|
| 주일1,2,3부 | 찬양예배 | 교회학교 | 주일예배 합계 | 수요일예배 |
| 998명 | 234명 | 201명 | 1,433명 | 132명 |

| 수입, 지출 내역보고(1/27) | | | (단위 : ₩) |
|-------------------|---------|------------|------------|
| 월 일 | 적 요 | 수 입 | 지 출 |
| 1월 27일 | 헌 금 | 42,526,100 | |
| | 말씀봉사비 | | 18,010,000 |
| | 급 여 | | 33,084,000 |
| | 찬양대사례비 | | 12,950,000 |
| | 교회학교사례비 | | 10,270,000 |
| | 교회학교운영비 | | 295,000 |
| | 찬양운영비 | | 6,640,000 |
| | 출 판 비 | | 250,000 |
| | 지원교회 | | 500,000 |
| | 인 건 비 | | 6,122,600 |
| | 복리후생비 | | 208,300 |
| | 통 신 비 | | 119,200 |
| | 수도광열비 | | 310,960 |
| | 차량유지비 | | 461,060 |
| | 도서인쇄비 | | 20,000 |
| | 사무용품비 | | 15,000 |
| | 소 모 품 비 | | 846,620 |
| | 환경유지비 | | 160,500 |
| | 수선유지비 | | 55,500 |
| | 식당운영비 | | 841,090 |
| | 합 계 | 42,526,100 | 91,159,830 |

2019년도 서울교회 겨울성경학교/수련회

| 부 서 | 일 정 | 장 소 | 주 제 | 지 도 |
|-----|------------------|--------|--------------------------|---------|
| 영아부 | 2월 16일(토) | 서울교회 | 나는 믿습니다 - 사도신경 학교 (창1:1) | 김은숙 전도사 |
| 유아부 | | | | |
| 유치부 | | | | |
| 청년부 | 2월 8일(금) ~ 9일(토) | 아가페 타운 |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엡 1:23) | 심우진 목사 |
| 사랑부 | 2월 17일(일) | 서울교회 |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요 1:12) | 심우진 목사 |